

예수님의 부활 입증

성경말씀: 눅20:27-40

드디어 예루살렘 입성, 1. 백성들의 시118편 호산나 환영, 2. 성전 청소(강도들), 3.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,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-4일 남음, 지도자들의 반발: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

1. 수제사장, 서기관, 장로들이 당황함, 권위 문제, 무슨 권위, 누가 주었느냐?(20:2)
침례자 요한의 회개의 침례, 어디에서 왔느냐, 하나님 혹은 사람(4), 대답 못함, 나도 안 한다. 지도자들이 결국 자기를 죽일 것이다. 그러나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.
2. 제사장, 서기관 참패 이후 사두개인 등장, 사두개인: 주전 300년경에 형성됨. 제사장과 성전 중심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었다(마16:1-12; 눅 20:27). '사두개'라는 말이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말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,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살면서 이 파를 창설한 사독 혹은 사두커스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.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(모세오경)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(구전 율법 배격).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(눅20:27).

이들의 주장: 모세는 이런 주제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.

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자 극도로 미워하고 죽이려 함
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. “죽으면 끝이야, 여기서 잘 살아야 해!”
유대 백성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나 고위층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.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(행23:6-9)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(행4:1; 5:17). <예수님의 부활 입증>

이야기 개요

모세의 형사취수 제도(28절, 창38; 신25:5-10), 이스라엘 남자는 유산으로 할당된 땅이 있다. 아들에게만 줌,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에게 씨를 남겨서 유산 상속, 지금은 불필요 어떤 가정, 일곱 아들, 한 여인, 모두 자식 없이 죽고 이 여자도 죽음(29-32)

이들의 질문(33):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? 이들에게는 대단한 수수께끼

이상한 일: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로 주님을 시험함

예수님의 대답(34-36)

1.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한다(34). 2. 그러나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(35). 3. 천사들과 동등해서 죽을 수도 없다(36). 4. 죽은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이 증명함(37), 5.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(38) 반대편에 있던 서기관들의 대답(39), 6. 더는 질문하지 못함(40)

주님의 부활 설명

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: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(창1:28). 마귀의 계락을 이기기 위해, 특히 범죄 이후 사람은 죽으므로 반드시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.

그러나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으므로 결혼 불필요, 결혼식장 장례식장 불필요

상태(36): 1. 천사, 2. 하나님의 자녀, 3. 부활의 자녀: 천상의 상태

천사의 아름다움(루시퍼), 힘(왕하19:35, 185,000명), 하나님의 뜻 순종, 흠이 없다. 우울증 No!
예수님의 부활 증명: 인간의 논리 이상 제시, 하나님의 말씀으로, 그것도 이들이 믿는 모세오경
출3:6, 14,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(죽음이란 전혀 모름),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. 죽음을 모르는 나의 호칭이 무어냐? “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”(I am)
“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.”, “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.”, “참 좋은 분이야.”

그러므로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다(38).

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살아 있다.

눅16의 부자와 나사로, 하나는 지옥에,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(천국에), 내 아버지, 장모님, 피어스 형제님, 이명자 어르신 등 부활도 두 개가 있다.

첫째 부활: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(첫 열매, 공중강림 시 교회 성도. 이삭줍기 구약시대, 7년 환난기 성도)

둘째 부활: 1000년 왕국 이후,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(계20:11-14)
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. 가장 큰 특징: 불멸

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크게 다른 점

사람의 불멸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양심에 빛을 주신다. 이교도라도 영원을 사모한다.

출3의 기사는 또한 부활하면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함을 보여 준다.

아브라함: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해야 한다. 여기서도, 저 세상에서도. 구원: 영 혼 육의 구원
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심(창17:7-8).

땅은 물리적인 땅, 후손 역시 물리적인 후손, 그러려면 몸을 가지고 부활해야 한다.

영원하신 하나님이 70년 사는 인간과 영존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난센스

성경의 부활은 무엇인가?

고전15:35-38, 씨를 뿌리면 뒤에 꽃과 열매가 나온다.

씨는 본성에 속한 몸, 꽃과 열매는 영에 속한 몸(즉 천상에 적합한 몸)

부활은 몸의 재구성이 아니다. 이것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시는 것이다.

이 새 몸은 옛 몸과 연속성은 갖지만 동일하지는 않다. 예수님의 몸: 부활 후 동일하지만 다르다.

식사, 옷, 말 등.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.

부활한 우리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안다(눅16의 나사로, 부자, 아브라함). 죽지 않는다.

그리스도인은 천사가 되는 게 아니다. 예수님의 형상을 지닌다(요일3:2). 하나님의 본성(벧후1:4)

하나님의 권능과 이들의 실수

막12:24, 성경 기록을 모른다: 욥19:25-27, 사26:19, 단12:2, 13, 겔37:24-25

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. 무에서 유 창조, 오직 말씀으로

하나님의 파워: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창조물에게 다른 몸을 주신다.

그러므로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실 수 있다.

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파워를 무시하고 접근하였다.

구원의 문제: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. 코의 숨이 멎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.

예수님의 확증

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모든 것

1. 천사, 2. 부활

“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.”(출3:16)

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.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

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: 부활, 오직 기독교만 부활을 믿고 가르친다.

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(고전15:14-15, 19, 50-53)